

# 타선 '핑핑' 수비 '꽝꽝' ... KIA 거침없는 5연승 단독선두

### ◆ 7일 시작

KIA	1	1	0	0	0	1	0	0	-	3
롯데	0	0	0	0	0	1	0	0	0	-

- 승리투수 = 서재용(1승1패)
- 세이브투수 = 앤서니(3세이브)
- 패전투수 = 유민(1승1패)

### 나지완 3안타·서재용 첫승

### KIA, 롯데에 3-1 승리



KIA의 새로운 소방수 앤서니가 5연승을 지키며 팀을 단독 1위에 올려놓았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2차전에서 3-1의 승리를 거두며 5연승에 성공했다. KIA(6승1패·승률 0.857)는 한화전 싹쓸이에 이어 시작에서의 두 경기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롯데(5승2패·승률 0.714)를 따돌리고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앞선 4경기에서 무려 42점을 뽑아냈던 타선이 주춤했지만 5일만에 출격해 마무리 앤서니가 8회 무사 1·3루의 위기를 마무리하며 시즌 3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김주찬·신종길로 이어진 '강한 2번'이 4연승의 원동력이었다면 7일 경기에는 3개의 안타를 몰아친 4번 나지완의 활약이 있었다.

이범호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2사 1루. 나지완이 롯데 선발 유민의 초구를 공략해 중앙 담장을 맞으며 1루 주자 이범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2회 터진 김선빈의 적시타로 2-0으로 앞선 3회, 나지완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5회 세 번째 공격에서는 또 다시 2루타를 터뜨리며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2-1의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던 7회 2사에서 나지완이 잠잠하던 공격에 불을 붙였다. 2사에서 나지완이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했다. 세 번째 안타를 때려낸 나지완은 최희섭의 중앙 담장을 때린 2루타때 홈에 들어오면서 값진 득점도 기록했다.

KIA가 3-1의 불안한 리드를 하던 8회말, 지난 2일 한화전을 끝으로 '강제 휴업'에 들어갔던 마무리 앤서니가 가동됐다.

8회 롯데 조성환의 2루타에 이어 손아섭의 중견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3루, 최향남을 대신해 앤서니가 마운드에 올랐다.

4번 전준우를 우익수 파울 플레이로 잡아내며 원 아웃을 만든 앤서니가 장성호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만루를 채웠다. 그리고 황재균을 상대로 땅볼을 유도해 냈다. 공을 잡은 유격수 김선빈이 2루 베이스를 찍은 뒤 1루에 송구를 끝내면서 더블 플레이를 완성했다.

앤서니는 9회 첫 타자 박종윤을 2루타로 내보내면서 맞은 위기에서는 중견수 플라이와 연속 삼진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우며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승
1 KIA	7	6	1	0	0.857	5승
2 롯데	7	5	2	0	0.714	2패
2 넥센	7	5	2	0	0.714	3승
4 두산	7	4	3	0	0.571	1승
4 LG	7	4	3	0	0.571	1패
6 삼성	4	2	2	0	0.500	2승
7 SK	5	2	3	0	0.400	2승
8 NC	5	0	5	0	0.000	5패
8 한화	7	0	7	0	0.000	7패



확실한 4번타자 나지완

7일 오후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KIA타이거즈의 경기 5회초 KIA 나지완이 2루타를 치고 있다.

<KIA타이거즈>

### 신시내티 추신수

### 3게임 연속 홈런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데뷔후 처음으로 세 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3-5로 뒤진 9회말 추격의 불꽃을 뿜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선두타자로 타석에 선 추신수는 경기를 마무리하려 올라온 라파엘 소리아노의 5구째 가운데로 몰린 시속 134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1점짜리 아치를 그쳤다.

추신수는 5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1회 마수결이 선두타자 홈런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대포를 몰아치며 절정의 타격 감각을 선보였다.

추신수가 세 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때린 것은 2005년 처음 메이저리그에서 타석을 밟은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타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를 홈으로 쓰는 신시내티에 올 시즌 새 동지를 쓴 추신수는 시즌을 시작하자마자 장타 쇼를 펼치며 개인 최다 홈런 기록(22개·2010년) 경신을 기대하게 했다.

벌써 3개째 대포를 날린 추신수는 내셔널리그(NL) 홈런 부문 2위로 올라섰다. 이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2홈런을 몰아친 저스틴 업튼(애들랜트 브레이브스)가 5개로 단독 1위다.

이 밖에도 추신수는 득점 7개로 NL 공동 1위, 출루율(0.500) 공동 2위, 장타율(0.850) 공동 4위 등 공격 각 부문 상위권에 올라 권치력을 갖춘 톱타자로서의 능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동시에 추신수는 이날 올 시즌 세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시내티는 연장 11회초 이안 데스몬드와 윌스 라모스에게 연달아 1점 홈런을 얻어맞아 6-7로 졌다. /연합뉴스

### 'F1 유망주' 서주원

### 국제 카트 레이싱 첫 우승

### 2013 로타스 DD2 클래스

'F1 유망주' 서주원(19·사진·중양대)이 국제 카트 레이싱 대회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서주원은 7일 일본 나고야 코다 서킷(1km)에서 열린 2013 SL 코다 시리즈 로타스



DD2 클래스 1라운드 결선에서 총 12바퀴를 9분37초817 만에 통과, 2위를 1초168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인 드라이버가 국제 카트 레이싱 무대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선 1위로 폴 포지션(출발선 맨 앞자리)을 확보한 서주원은 결선에서 한때 2위로 밀렸지만 역전에 성공,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서주원이 우승한 SL 코다 시리즈 대회는 일본 지역 카트 레이싱 시리즈 대회중 상급 대회에 속한다. 전체 8번의 레이스를 펼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드라이버는 시리즈 챔피언 자리에 오른다.

서주원은 "매번 일본 선수들한테 지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겨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신바람나게 승리를 거둬 꼭 시리즈 챔피언을 거머쥐겠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서주원은 2008년 카트에 입문, 2012년 코리아카트챔피언십 종합 2위에 오르는 등 한국인 첫 F1 드라이버의 유망주로 불린다. 카트 레이싱은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다.

전설적 F1 드라이버인 미하엘 슈마허(독일)나 루이스 해밀턴(영국·메르세데스), 제바스티안 페렐(독일·레드불) 등 현역 F1 드라이버들이 모두 카트 레이싱을 거쳤다.

/연합뉴스

## 윤석민 없이도 ... KIA '선발 야구' 연착륙 성공

타선의 지원속에 KIA의 선발 야구가 연착륙에 성공했다.

KIA는 마무리의 부재와 윤석민의 부상 그리고 김진우의 지각 출발로 불안하게 올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 시즌 KIA는 윤석민-김진우-소사-앤서니-서재용으로 선발진을 운영했다. 선발 44이닝 무실점 이닝의 기록을 장식한 만형 서재용을 필두로 이들은 시즌 막바지 4경기 연속 완투수를 펼치며 불펜에 휴가를 주기도 했다.

중심타자들의 부상속에 선발진의 힘으로

버텼던 KIA지만 올 시즌은 모양새가 다르다.

일단 윤석민과 앤서니가 선발진에 없다. 2012시즌 18차례의 불펜 세이브에 올랐던 선동열 감독은 일찌감치 앤서니를 마무리로 옮겨 새 마운드를 구성했다. 여기에 윤석민이 어깨통증으로 빠지면서 두 자리가 빈 채로 출발을 했다.

빈자리에 좌완 양현종과 임준섭이 투입됐다. 그리고 팔꿈치가 좋지 않아 뒤늦게 몸을 풀 김진우가 처음 로테이션에 합류하는 등 양현종-임준섭-소사-김진우-서재용이 나란

히 출격한 지난 5경기는 KIA의 선발 시험 무대였다.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선발로 출격한 5명의 선발진이 모두 시즌 첫 승을 챙겼다. 특히 임준섭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KIA에서 2002년 김진우에 이어 11년 만에 프로 데뷔전 선발승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 두 차례의 연습경기를 거치고 바로 1군 시험 가동에 나선 김진우도 6이닝 7피안타 2사사구 2실점(1자책)의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회가 거듭되면서 김진우의

### 양현종·임준섭 투입

### 타선 지원으로 부담 덜어

폭포수 커브 위력이 발휘, 9개의 탈삼진도 기록했다.

개막전 선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소사는 8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두 경기 만에 승을 챙겼고, 불운에 올랐던 서재용도 불펜의 지원 속에 2점 차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물론 완벽했던 피칭은 아니었다. 소사를 제외하고는 6이닝이 끝이었다. 1회도 힘겨웠다. 컨트롤의 마법사로 통하는 서재용도 두 타자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는 등 완벽 지 못한 제구로 5명의 선발 모두 불안한 1회

를 보냈다.

평범한 마운드 힘겨부기 속 타선의 힘에서 앞선, 타자들의 지원을 많이 받은 승이었다. 허약한 불펜도 그만큼 부담이 덜했던 5연승이었다. 타선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선발진의 진짜 실력도 드러나게 된다.

일단 첫 로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돌아갔다. 다음 일정도 KIA에 유리하다. 9·10·11일 두산과의 홈경기가 끝나면 주말에는 일정이 없다. 9개 구단 체제에서 발생한 휴식기다. 그만큼 KIA는 주중 선발진을 총투입해 3경기를 벌일 수 있다.

연승으로 탄력을 받은 KIA에게는 유리한 일정속에서 마운드 전력을 완성하는 게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